수입약재 중금속 오염

한약 첩약의 70%이상이 외국약재

저질 수입약재, 한의학 퇴조 우려

한약재 수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도 한약재의 수입시 중금속 오염도등을 검사해 저질의 한약재 유통을 막는 규제도는 전무한 실정이다.

또 일선 한의원들이 한약첩약의 70%이상을 저질의 외국약재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랍 25일 보사부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1억1천7백여만 달러어치의 한약재가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67년 한약재 수입액 3천53만 달러의 4배에 가까운 막대한 물량이다.

이처럼 한약재 수입이 급증하는 이유는 일선 한의원들이 값이 싼 저질의 수입약재를 원하는데다 국내 농가들이 가격경쟁력에서 중국산에 밀리는 한약재생산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저질의 외국산 한약재가 국내제조 한약품의 주된 원료로 사용되자 보사부와 한의업계는 양약과는달리 약효에 대한 실험과 검증없이 토양이 다른 외국의 값싼 약재를 들여다 쓰는 것은 치료효과를 떨어뜨릴뿐 아니라 한의학의 퇴조마저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보사부 관계자는 『물질특허 도입 이후 국내 제약업체들이 값비싼 기술사용료를 물지 않아도 되는 생약제제 생산에 몰려들면서 한약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수입약재의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이유가 되고 있다는 분석했다.

◇한국생약협회는 구랍 19일, 청정약재 생산을 다짐하며 그린스카우트지부 발대식을 가졌다.

생약협회 구랍 19일

"청정약재 생산하자"

그린스카우트지부 발대식

수입한약재의 중금속 다량함유 사실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생약협회는 구랍 19일 4천여명의 재배농민회원과 관련인사들이 참석한 전시회 개장식 행사에서 청정약재 생산을 다짐하는 그린스카우트 발대식을 가졌다.

밭은물 좋은 토양이 양질의 생약재를 생산한다는 전제 아래 우리생약 살리기가 결국은 환경운동과 맥을 같이 한다는데서 출발한 것.

생약협회는 이문섭이사(충남 논산군 논산읍 화지동)가 날록한 선서를 통해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연을 더럽히거나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우리는 훼손된 자연을 원상으로 되돌려 놓는 일에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 ▲우리는 푸른세상 푸른 지구를 가꾸는 환경파수꾼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할것 임을 밝혔다.

그린스카우트연맹 김재범 사무총장의 위촉장 수여식이 있었으며 앞서 협회 임연학 수석부회장의 그린스카우트 지부 발대식 추진 경과보고와 함께 라한주이사(전남 승주군)가 단원헌장을 낭독했다.

한약재로 만든 방향제·베개 인기

한약재가 이젠 보약이 개념만이 아닌 우리 생활속으로 보다 친숙하게 다가왔다.

구랍 19~21일 3일간 올림픽 역도경기장에서 열린 제1회 우수국산 한약재 전시회에서 한국생약협회가 아이디어 상품으로 내놓은 방향제와 쿠션 베개가 소비자들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모은것.

우리 한약재를 구입하기 위해 멀리 수원에서 왔다는 김선희씨(32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는 『한약재를 넣어 만들어선지 다른 인공향료와 비교해서 머리도 아프지 않고 향이 은은해서 좋다』며 선물용으로 여러개를 구입해 갔다.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 부근에 산다는 양기수씨(68세), 홍기임씨(66세) 노부부는 『어제 베개를 하나 사갔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머리가 한결 맑아진 느낌이라며 하나를 더 구입해 가기도.

안덕균 교수(경희대 한의과대학)에 따르면 백지 고본 천궁 결명자 만형자등은 신경과민으로 잠못 이루면서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치료반응을 보이는 한약재로서 이들 한약재로 베갯속을 만들어 베고 자면 편두통 예방과 치료, 두뇌의 순환개선과 안정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또 창출 애엽 당귀 천궁 등 순수 우리 한약재로 만든 방향제를 방이나 거실 부엌 자동차 내부에 놓아 두면 악취가 제거되고 벌레나 해충의 근접을 막아주며 무엇보다 좋은 향기가 휘산돼 상쾌함을 더해준다고 안교수는 설명한다.

◇생약협회가 전시행사에 아이디어 상품으로 선보인 방향제와 베개.

한의협등 3개단체 수입약재 조사키로

수입 한약재의 중금속 오염도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협·한의학연구소·KIST등 3개단체는 공동으로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약재를 수집 중금속함유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이들 단체들은 특히 아무런 검사절차 없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한약재등을 조사대상에 포함, 국산 한약재의 우수성을 밝혀 차별성을 높여 나간다는 의도이다.

한의협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양질의 한약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있는 한약재에 대한 엄격한 검사가 제도화되도록 정부측에 건의할 방침이다.

내방

▲송경태 명예회장 ▲이옥용 남정룡 고문 ▲김창한 이사 ▲이문섭 이사 ▲김종근 이사 ▲김용한 이사 ▲이지대 장지홍 이사 ▲김성배 지부장(충북) ▲박영임 지부장(경기) ▲도상학 지부장(강원) ▲안덕균 생약연구위원장 ▲성낙술 생약연구위원 ▲이인기 사무소장(포천군) ▲이성덕 사무소장(구리시) ▲신현석 사무소장(양평군) ▲이웅희 사무소장(안성군) ▲십호섭 사무소장(영월군) ▲조광호 사무소장(정선군) ▲이한승 사무소장(제천군) ▲조병섭 사무소장(청양군) ▲정일영 사무소장(구례군) ▲김정만 사무소장(고성군) ▲김우홍 사무소장(남해군)

사 설

우리생약재 살리기 위한 모두의 인식전환 필요한 때

우리생약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개최했던 제1회 우수국산 한약재 전시회는 많은 생약재배 농민 공무원 한방계 인사들의 참여속에 성대하게 치뤄졌다.

전시회를 참관했던 많은 일반 소비자들의 관심도 많았던것 같다.

70년대에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남아서 일본, 대만등 외국에 많은 양을 수출하던 우리 생약재가 점점 줄어들어 요즈음은 재배품목 60여종, 자생약초 20여종 밖에 생산치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 생약을 살려야 한다는 취지에는 생산자나 실수요자나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생약을 살릴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다.

지난번 개최했던 전시회가 어떤 일과성 행사로 끝난다면 많은 인력과 자금을 동원하고도 실제 우리 생약재 살리기의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국산약재와 수입약재의 성분분석을 통한 비교등 보다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연구와 접근이 필요하다.

외국산 약재 중에서 우리와 경쟁이 되는 것은 중국산 약재인데 우리 약재보다 보통 2~3배 가량 싼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어 가격면에서는 일단 국산한약재가 밀리고 있는 형편이다.

결국 품질로 승부하는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예로 백작약 산수유 복령 시호 목단 등은 중국산 보다 비싼가격임에도 품질이 뛰어나 각국에서 호평받고 있는 품목들이다.

특히 삼도시호의 경우 무려 11배의 가격차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수출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품질이 뛰어남을 입증하는 셈이다.

또한 우리 약재가 아직까지는 중금속이나 농약잔류기준등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상대적으로 외국산보다는 안심하는 것도 일반 실수요자들의 견해이다.

한편 인건비 상승으로 생산원가가 많이 높아졌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황기의 경우 포천지역에서는 씨비닐을 통한 파종의 능률적인 방법에서부터 가을 수확기까지 상당히 과학적인 영농방법으로 생산원가를 낮추는데 성공했다.

물론 지역에 따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강원도 황기의 경우는 기계화가 어렵기 때문에 1년생 보다는 다년생으로 재배를 하여 품질이 우수한 황기를 생산해야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고부가가치 생약을 개발해야한다. 작년 협회가 시험재배에 착수한 지황의 겨우 재래종보다 4배이상 생산이 가능하고 품질 또한 우수한 것으로 판명됐다. 이 지황에 대해서는 조직배양을 통한 병균없는 묘의 생산이나 지역별로 토질에 맞는가에 대한 연구가 보다 심도있게 계속되야 한다.

우리 생약재 살리기에 빠져서는 안될 것이 바로 일반 소비자들의 인식전환이다.

우수국산 한약재의 품질성분을 철저히 분석하여 외국산과 어떻게 다른가를 데이터를 통해 실소비자들에게 알리고 또한 우수국산한약재와 수입약재와의 구별할 수 있도록 상설전시장도 만드는 방법도 있다.

결국 국제화 시대에 생약농업이 살아남으려면 우리 모두의 인식전환과 함께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이 요청되고 또한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도 장단기적인 계획속에 일관성 있게 시행되야 할 것이다.